

밀양공연예술축제 차세대연출가전·대학극전 수상작 선정

등록 2021.08.24 11:24:54 | 수정 2021.08.25 14:28:58

차세대연출가전 신진상 '하멜린'·미래상 '나는 사랑한다' 수상
대학극전 대상 '메데이아'(호원대)…올해 비대면 경연



차세대연출가전 신진상 하멜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울 기자 = 경남 밀양공연예술축제추진위원회는 제21회 밀양공연예술축제 대학극·차세대연출가전 수상작들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차세대연출가전은 지난 5일 영상제출을 마감해 15일간의 국내 대표적인 연출가, 평론가, 배우로 구성된 심사위원 10명(심재찬·윤우영·지춘성·최용훈·김건표·문삼화·배선애·김귀선·서지혜·김정근)이 비대면(영상)심의를 통해 최종 작품별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수상작품을 확정했다.

예선 63편의 작품 중 최종 8개 작품이 경연(본선) 무대에 오른 차세대연출가전은 두 개 작품상인 신진상과 미래상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신진상에는 연출 김지은의 '하멜린'이, 미래상은 연출 장진웅의 '나는 사랑한다(김명순전)'가 선정됐다.

신진상을 받은 '하멜린'이 연출상(김지은)과 남자 연기상(김병철)을 받아 올해 밀양공연예술축제 차세대연출가전에서 이례적으로 3관왕을 차지하게 됐다. 이밖에 여자 연기상 '너에게 말한다(김마음)'와 올해 신설된 무대예술상 '타인의 눈' 박동기 무대감독이 받게 됐다.



차세대연출가전 미래상에 김명순전.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대학극전은 총 6개 대학이 본선에 올랐으며 호원대학교의 '메데이아'가 대상과 연출상(김찬희)을 수상해 2관왕을 차지했고, 군장대학교 '귀몽- 고향으로 가는 꿈'이 작품상을, 대경대학교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동상을 받았다.

최우수 연기상에는 '귀몽, 고향으로 가는 꿈' 조성호가, 우수연기상 '12인의 성난 사람들'의 박웅비, '댄스시어터춤'의 경성대 강신희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학극전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3명이 맡았다.

올해 차세대연출가전 신진상, 미래상 수상작품은 내년 (사)한국연출가협회 신진연출가전과 서울연극협회 미래 연극제에 각 작품이 공식 참가하게 되며 각 5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대학극 대상은 상금 100만원과 각 분야 수상단체와 개인 수상자는 상금과 상장을 준다.

심재찬 심사위원장은 "올해 차세대연출가전 작품들이 동시대 담론과 소재들을 독창적인 연출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려는 의도들은 미래 한국연극의 긍정적인 신호다"면서 "텍스트를 풀어가는 과감한 실험성과 무대구현의 방식이 독창적인 연출의 스타일들을 작품을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대학극 군장대 귀몽. *재판매 및 DB 금지

김건표 총 예술감독은 "이번 영상심사도 현장예술의 특성을 살려냈기 때문에 심사위원 전원이 영상으로 평가하면서도 심층적인 대면 토론을 거쳐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차세대 연출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1회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코로나 19로 축제가 일주일 앞두고 전면 취소되면서도 전통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차세대연출가전과 대학극전은 비대면(영상) 경연으로 치러졌다. 차세대연출가전 8개 출품작 중 5개 작품은 일부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